

재미 한인의 문화 적응도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식생활 습관과의 관련성

김 정 선[†] · 심 영 자¹⁾

세명대학교 한방식품영양학과, Food Protein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Texas A & M University, USA¹⁾

Relationship of Acculturation to Demographics and Dietary Habits Among Korean Americans

Jeongseon Kim,[†] Young Ja Sim¹⁾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Chechon, Korea
Food Protein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Texas A & M University, US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acculturation varies with demographic variables and is related to dietary habits among Korean Americans. The respondents were 162 Korean Americans aged at least 18 years old residing in the Greater New York metropolitan area. The level of acculturation was measured using a modified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SL-ASIA) scale. Acculturation was operationally defined to be composed of 6 factors, which are language, media use, friendship, food, pride, and ethnic self-identity. Each factor in the level of acculturation was identified by how it is related to demographics and dietary habits in the method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s analyses. The reliability of the modified SL-ASIA scale was high as measured by Cronbach alpha of .92. The level of acculturation was related to place of birth, age, length of residence in the U.S., and education. The younger, the longer they had lived in the U.S., and the more they were educated, the more acculturated. Acculturation could be predictable for 52% of its variance with all demographic variables. Among the 6 factors in the level of acculturation, five of them, language, media use, friendship, food, and ethnic self-identity were correlated with dietary habit changes after immigration and type of meals. All 6 acculturation factors could predict 21% of change in dietary habits. The information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describe usual dietary habits according to various aspects of acculturation to better understand the dynamics among acculturation, demographics, and dietary habi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2) : 243~249, 2001)

KEY WORDS : acculturation, demographics, dietary habits, korean americans.

서 론

문화적응이란 다양한 민족들간의 특징과 요인으로 인해 새롭고 혼합적인 패턴을 형성시키는 문화적 수용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Gove 등 1993). 이러한 문화적응은 이민 또는 이주전에 지니고 있던 식생활을 유지 또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왔다(Freedman 1977 : McKenzie

채택일 : 2001년 3월 17일

[†]Corresponding author : Jeongseon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Oriental Medicine, Semyung University, San 21-1, Shinwol-dong, Chechon, 390-711, Chungbuk, Korea
Tel : (043) 649-1431, Fax : (043) 649-1349
E-mail : jeongseonkim@yahoo.com

1964). 빠른 사회적 변화와 문화 적응과정을 경험하는 집단들의 식생활의 변화는 지역사회 영양학자들과 영양인류학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Freedman & Grovetti 1984). 또한,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에서 질병의 유병율의 증가가 식생활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Huang 등 1996). 이러한 특정한 집단이나 문화와의 관계에 관련된 영양역학적 연구는 영양프로그램과 임상연구의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열량, 지방과 당류 섭취의 증가와 총탄수화물과 섬유소를 포함한 복합탄수화물 섭취의 감소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퇴행성 질환의 원인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Marmot & Syme 1976 : Reed 등 1982).

이러한 문화적응도는 아시아계의 미국인을 위한 사회·심리적 증재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서 간주되어왔다. 문화적응은 직선적이거나 일차원적인 과정이 아니라, 행동,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관련되는 다원적인 과정이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문화적응척도인 Suinn-Lew Asian Self-Asian Acculturation(SL-ASIA) 척도는 심리학과 신체건강과 관련된 학문에서 적용되어왔다(Suinn 등 1995).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척도는 이민자들의 집단과 관련된 연구에서 심리치료와 만성질환을 가려내는데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적응도의 수준과 식습관을 관련시키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수적인 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 중의 하나이고 지난 10년간 그 수가 배로 증가하였다. 1990년 미국 정부의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거의 80만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U.S. Department of Commerce 1991). 이 인구집단은 2000년까지, 130만명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의 외무부에서 발행한 최근의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영주권과 임시 비자형태를 갖고 있는 재미한인의 수는 1996년 12월까지 2,209,407명이라고 보고하였다(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97).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한국사람이 많은 주이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미한인의 문화적응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구통계학적 요인 분석과 이러한 문화적응도의 차이에 따른 일상적인 식생활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도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이민 후 미국문화로의 동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언어, 대중매체 이용, 친구관계, 식품 섭취, 자부심과 민족적 자아정체성의 6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뉴욕주 근교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적응도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지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문화적응도의 차이에 따라 식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추출

식생활의 양상에 있어서 문화적응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부분적 상관성에 대한 Cohen의

표본크기표를 사용하여 통계적 power를 구하였다(Cohen 1988). medium effect size로서 부분적 상관계수인 0.5에 대하여, 만약 $\alpha = 0.05$ 이고 two-tailed의 상태에서 $\beta = 0.2$ 일 때, 적어도 84명의 표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171명의 표본크기는 Cohen의 medium effect size보다 더 적은 상관계수도 감지하기에 충분히 power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상자들은 재미 한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뉴욕근교 지역에 살고 있는 재미 한인 지역사회에서 임의로 선별하였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18세 이상의 재미 한인이 이 연구의 대상자였다. 이 연구는 뉴욕대학교의 Human Subjects 위원회에 의한 검토와 연구 동의를 받은 후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처음에 171명으로 시작되었으나 162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도 구

이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연령, 성별, 가구의 수입, 직업, 미국 거주기간, 문화적응도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미국 이민 후 식사형태의 변화 여부 및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형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SL-ASIA 척도를 변형한 것을 이용하여 재미한인의 문화적응도를 측정하였다. 멕시코계의 미국인들의 문화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SL-ASIA 척도를 그 후 아시아계의 미국인들에게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할 논문들이 있다(Gim 등 1990). 원래의 SL-ASIA 척도는 언어, 정체성, 친구 선별, 행동, 세대/지역적 역사와 태도를 포함하는 21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Suinn 등 1995).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적응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가지의 요인을 17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척도에 포함시켰다. 즉, 언어(여섯 가지 질문), 대중매체 이용(세가지), 친구관계(네가지), 식품 섭취(두가지), 자부심(한가지)과 민족적 자아정체성(한가지)이 그 것이다.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한국적인 것(1점)에서부터 매우 미국적인 것(5점)의 범위를 두어 점수화하였다. 높은 점수는 문화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에 관한 정보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모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자기기입법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서 수집 검토한 후 대상자에게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질문하였다. 각각의 설문지가 자료기록만을 위하여 코드화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SPSS-10.0 소프트웨어 패키지(SPSS Inc. 2000)를 이용하여 자료의 정규분포도와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테스트한 후, 자료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SL-ASIA 척도의 신뢰성은 내부적 일치성(internal consistency)에 관한 계수, 즉 Cronbach alpha로서 제시되었다. 인구통계학적인 정보에 따른 문화적응도와의 관계, 또한 이 문화적응도가 식생활의 변화 및 식사형태와의 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연령, 성별, 출생지, 미국거주년도, 교육기간, 수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종속변수인 문화적응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알아보았다(Tabachnick & Fidell 1996). 또한, 문화적응도를 구성하는 여섯가지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미국 이민 후 식생활의 변화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자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이다. 대부분이 여성(64%), 중년, (37세이상), 중산층(52%정도가 \$25,000에서 \$75,000의 범위에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85%), 기혼이었다(69%). 미국거주년도와 교육기간은 각각 9.9년과 14.5년이었고 평균적인 신체체중치(BMI)는 22.1 kg/m²이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그들이 흡연을 하지 않고(84%),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70%), 비타민/무기질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는다(54%)고 보고하였다. 162명중 1/3이 전업주부였다.

2. 문화적응도와 식생활 양상

재미한인에 맞게 변형된 SL-ASIA 척도의 신뢰성은 Cronbach alpha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그 수치는 0.92였다. 문화적응도의 평균점수는 2.1(1에서 5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재미한인은 모든 17개의 질문에 대하여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2).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집에서(90% 이상), 친구와(80%), 생각할 때(81%), 책을 읽을 때(63%)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거의 절반정도(48%)가 한국어를 일할 때 말하는 언어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응답자(93%)가 어린 시절에 한국어를 사용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대다수(81%)는 미국인보다는 한국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였고 가정에서 식사할 때

Table 1. Profile of the respondents(N = 162)

Characteristic	N(%)
Gender	
Male	58(35.8)
Female	104(64.2)
Income	
under \$10,000	15(9.3)
\$10,000 - \$14,999	8(4.9)
\$15,000 - \$24,999	20(12.3)
\$25,000 - \$34,999	22(13.6)
\$35,000 - \$49,999	30(18.5)
\$50,000 - \$74,999	32(19.8)
\$75,000 - \$99,999	13(8.0)
\$100,000 or more	22(13.6)
Place of birth	
Korea	137(84.6)
USA	25(15.4)
Marital status	
Single	43(26.5)
Married	111(68.5)
Other(widowed, divorced, separated)	8(4.9)
Smoke	
Yes	26(16.0)
No	136(84.0)
Exercise	
Yes	48(29.6)
No	114(70.4)
Vitamin/mineral supplements	
Yes, fairly regularly	28(17.3)
Yes, but not regularly	47(29.0)
No	87(53.7)
Change in dietary habits after immigration	
Strongly disagree	17(10.5)
Disagree	28(17.3)
Don't know	9(5.6)
Agree	72(44.4)
Strongly agree	11(6.8)
N/A	25(15.4)
Occupation	
Professional specialty	16(9.9)
Managerial, administrative support, clerical	18(11.1)
Sales, technical	13(8.0)
Service	2(1.2)
Precision production, craft, repairs	20(12.3)
Operator, fabricator, laborer	13(8.0)
Students	30(18.5)
Housewife	50(30.9)
Age(y)	36.9 ± 11.9 ^a
Length of residence in the U.S.(y)	9.9 ± 7.2 ^a
Education(y)	15.4 ± 3.4 ^a
Height(cm)	163.6 ± 7.7 ^a
Weight(kg)	59.4 ± 11.7 ^a
Body mass index(kg/m ²)	22.1 ± 3.1 ^a
Acculturation	2.1 ± 0.8 ^a

a : Mean ± standard deviation

Table 2. Distribution of acculturation¹⁾ of the respondents(N = 162)

Item	1	2	3	4	5	Mean ± SD ²⁾
What language(s) do you speak at work?	20(12.3) ³⁾	58(35.8)	31(19.1)	26(16.0)	27(16.7)	2.9 ± 1.3
What language(s) do you speak at home?	107(66.0)	38(23.5)	7(4.3)	6(3.7)	4(2.5)	1.5 ± 0.9
In general, what language(s) do you read?	67(41.4)	35(21.6)	24(14.8)	22(13.6)	14(8.6)	2.3 ± 1.4
In what language(s) do you usually think?	97(59.9)	34(21.0)	13(8.0)	8(4.9)	10(6.2)	0.8 ± 1.2
What language(s) did you use as a child?	143(88.3)	6(3.7)	6(3.7)	6(3.7)	1(0.6)	1.3 ± 0.8
What language(s) do you usually speak with your friends?	105(64.8)	25(15.4)	13(8.0)	10(6.2)	9(5.6)	1.7 ± 1.2
In what language(s) are the TV programs you usually watch?	28(17.3)	28(17.3)	37(22.8)	39(24.1)	30(18.5)	3.1 ± 1.4
In what language(s) are the radio programs you usually listen to?	47(29.0)	24(14.8)	28(17.3)	20(12.3)	43(26.6)	3.0 ± 1.6
In general, in what language(s) are the movies, TV, and radio programs you prefer to watch and listen to?	37(22.8)	23(14.2)	40(24.7)	38(23.5)	24(14.8)	2.9 ± 1.4
Your close friends are :	111(68.5)	30(18.5)	14(8.6)	3(1.9)	4(2.5)	1.5 ± 0.9
You prefer going to social gatherings/parties at which people are :	96(59.3)	45(27.8)	15(9.3)	4(2.5)	2(1.2)	1.6 ± 0.9
The persons you visit or visit you are :	108(66.7)	39(24.1)	7(4.3)	3(1.9)	5(3.1)	1.5 ± 0.9
If you can choose your child(ren)'s friends, you would want them to be?	19(11.7)	18(11.1)	110(67.9)	11(6.8)	4(2.5)	2.8 ± 0.8
What do you usually eat at home?	73(45.1)	60(37.0)	19(11.7)	7(4.3)	3(1.9)	1.8 ± 0.9
What is/are your favorite restaurant(s)?	51(31.5)	51(31.5)	41(25.3)	14(8.6)	5(3.1)	2.2 ± 1.1
If you consider yourself a member of a Korean group, how much pride do you have in this group?	57(35.2)	52(32.1)	11(6.8)	41(25.3)	1(0.6)	2.2 ± 1.2
Among the following terms which best represents you?	69(42.6)	52(32.1)	33(20.4)	5(3.1)	3(1.9)	1.9 ± 1.0

1) Coded 1 = very(extremely) Korean, 2 = more Korean, 3 = both equally, 4 = more American, 5 = very(extremely) American

2) Standard deviation 3) Number of respondents(%)

(82%)와 외식시(63%) 한국음식을 선호하였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그들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77% 정도는 그들의 자녀의 친구들이 미국인하기를 원하였으며 대중매체의 프로그램을 영어로 시청(청취)하기를 원하였다(63%).

식생활에 관해서는 절반이상(61%)이 그들의 식습관이 미국으로 이민 온 후 변화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가 아침식사를 한국음식으로 섭취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응답자가 점심(49%)과 저녁(83%)의 경우 한국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5.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문화적응도와 의 관계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적응도는 출생지, 연령과는 유의적인(-)의 상관관계를, 미국의 거주년도, 교육정도와는 유의적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연령, 성별, 출생지, 미국 거주년도, 교육수준, 가구당 수입을 독립변수로 두고 문화적응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인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able 3. Correlation of demographic variables with acculturation

	Acculturation
Age	-.556**
Gender	-.117
Place of birth	.501**
Length of residence in the U.S.	.378**
Education	.417**
Income	.057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analysis)을 통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종속변수, 즉 문화적 적응도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령만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문화적응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31%를 예측할 수 있었다(모형 1). 이러한 회귀모형에 성별을 첨가시키면(모형 2) 문화적응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형 1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지를 포함시키면(모형 3) 모형 1과 2보다 문화적응도를 13% 더 많이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모든 독립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키면(모형 6) 문화적응도를 52%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모든 모형에서 각각의 독립변수는 문화적응도와 유의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B는 회귀공식과 관련있는

Table 4. Summary of regression model for acculturation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F	Sig.
1	.556 ¹⁾	.309	.305	10.74	71.611	.000 ¹⁾
2	.559 ²⁾	.312	.304	10.75	36.110	.000 ²⁾
3	.662 ³⁾	.438	.427	9.75	40.991	.000 ³⁾
4	.698 ⁴⁾	.487	.474	9.34	37.235	.000 ⁴⁾
5	.723 ⁵⁾	.522	.507	9.04	34.122	.000 ⁵⁾
6	.724 ⁶⁾	.524	.505	9.06	28.390	.000 ⁶⁾

1) Predictors : (Constant), Age
 2) Predictors : (Constant), Age, Gender
 3) Predictors : (Constant), Age, Gender, Place of Birth
 4) Predictors : (Constant), Age, Gender, Place of Birth, Length of Residence in the U.S.
 5) Predictors : (Constant), Age, Gender, Place of Birth, Length of Residence in the U.S, Education
 6) Predictors : (Constant), Age, Gender, Place of Birth, Length of Residence in the U.S, Education, Income

weight이다. 이러한 B weight에 따르면, 회귀공식은 다음과 같다.

Predicted Acculturation =

$$17.16 - .36 \text{ Age} + 1.12 \text{ Gender} + 9.42 \text{ Place of Born} + .53 \text{ Length of Residence in the U.S.} + .93 \text{ Education} + .22 \text{ Income}$$

일반적으로, 위의 공식을 이용하여 예측된 종속변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weight은 독립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만약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평균값 0과 표준편차 1(Z 점수)을 갖기 위하여 표준화된다면 weight을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표준화된 변수에 대한 예측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text{Predicted Acculturation}} = -.33 Z_{\text{Age}} + .04 Z_{\text{Gender}} + .26 Z_{\text{Place of Born}} + .29 Z_{\text{Length of Residence in the U.S.}} + .24 Z_{\text{Education}} + .04 Z_{\text{Income}}$$

6. 문화적응도와 식생활의 양상과의 관계

Table 5에서 보여주듯이, 이민 후 식생활의 변화 여부는 언어, 대중매체 이용, 친구관계, 식품 섭취, 민족적 자아정체성과 유의적으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침, 점심, 저녁식사 모두 언어, 대중매체 이용, 친구관계, 식품 섭취, 민족적 자아정체성과 유의적으로(+)의 관계를 보여 주었다. 즉, 미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미국식의 대중매체와 미국친구들과 미국식의 음식을 먹으며 한국고유의 자아정체가 적을수록 이민 후 식습관이 변화하는 경향이 크고 미국식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Table 6은 문화적응도 6가지 요인이 어느정도 식습관의 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모형 1에서는 언어만을 독립변수로 하였을 때 종속변수의 분산을 19%정도 설명할 수 있었다. 모형 2에서 대중매체 이용이라는 변수를 첨가시켰을 때와 모형 3에서 친구관계라는 변수를 하나 더 포함시켰을 때 식생활

Table 5. Correlation of acculturation(Six Factors) with changes in dietary habit and type of meals

	Change in Dietary Habit	Breakfast	Lunch	Dinner
Language	.430**	.394**	.532**	.659**
Media Use	.363**	.363**	.453**	.468**
Friendship	.303**	.374**	.356**	.472**
Food	.215**	.475**	.452**	.519**
Pride	-.039	.091	-.043	.039
Ethnic Self-identity	.344**	.363**	.397**	.533**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2-tailed).

의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모든 독립 변수, 즉, 언어, 대중매체 이용, 친구관계, 식품 섭취, 자부심, 민족적 자아정체성의 변수를 다 포함시켰을 때 (모형 6) 종속변수의 21%를 해석가능하게 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각각의 문화 적응도요인들을 식생활의 변화와 유의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B weight에 따른 문화적응도 6가지 요인이 식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회귀공식은 다음과 같다.

Predicted Change in Food Habits =

$$2.24 + .07 \text{ Language} + 0.05 \text{ Media Use} + 0.01 \text{ Friendship} - .10 \text{ Food} - .07 \text{ Pride} + .18 \text{ Ethnic Self-identity}$$

표준화된 변수에 대한 예측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text{Predicted Change in Dietary Habits}} = .30 Z_{\text{Language}} + .15 Z_{\text{Media Use}} + .02 Z_{\text{Friendship}} - .12 Z_{\text{Food}} - .06 Z_{\text{Pride}} + .12 Z_{\text{Ethnic Self-identity}}$$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도에 미치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중 연령, 출생지, 미국의 거주년도, 교육정도와 관련된

Table 6. Summary of regression model for changes in dietary habit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F	Sig.
1	.430 ¹⁾	.185	.180	1.22	36.355	.000 ¹⁾
2	.440 ²⁾	.194	.184	1.22	19.113	.000 ²⁾
3	.440 ³⁾	.194	.179	1.23	12.664	.000 ³⁾
4	.447 ⁴⁾	.200	.180	1.22	9.821	.000 ⁴⁾
5	.449 ⁵⁾	.202	.176	1.23	7.874	.000 ⁵⁾
6	.456 ⁶⁾	.208	.177	1.23	6.773	.000 ⁶⁾

1) Predictors : (Constant), Language

2) Predictors : (Constant), Language, Media Use

3) Predictors : (Constant), Language, Media Use, Friendship

4) Predictors : (Constant), Language, Media Use, Friendship, Food

5) Predictors : (Constant), Language, Media Use, Friendship, Food, Pride

6) Predictors : (Constant), Language, Media Use, Friendship, Food, Pride, Ethnic Self-identity

있다고 보여주었다. 뉴욕과 하와이 인근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1998)에서는 연령, 수입, 교육수준, 직업, 성별, 가구의 구성요소(배우자, 자녀, 특히 학령기의 자녀 여부)와 관련이 있었다. 케네디컷주에 사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Chung 1995) 미국의 거주년도, 연령, 교육수준, 직업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문화적응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 영어숙련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미국거주 소수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도 언어적 문제가 이민문화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Flores 2000; Westermeyer & Cheng 1996). 본 연구에서는 변형된 SL-ASIA 척도를 이용하여 문화적응도를 측정하고 이를 식생활의 변화와 양상에 적용시켰으나 같은 척도를 이용하여 문화적응도를 결정한 후 이를 건강진단행동의 습관화에 미치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연구한 논문이 있다(Yi 1998). 문화적응도가 높을수록 정기적으로 건강을 진단하는 습관이 더 강함을 보여주었다.

문화적응도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소수민족의 식습관에 대한 연구들을 통하여 식습관과 식품의 이용도, 인종적 차이, 거주기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Lewis & Glaspy 1975; Newman 1980). 또한 Grivetti & Paquette(1978)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계 미국인들은 문화적응으로 인하여 식생활의 변화가 왔다고 발표되었다. 또 다른 중국계 미국인들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이민 전과 후 유의적으로 식습관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Newman 1980). 그러나, 5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중국인의 식습관으로 다시 반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는 미국의 거주년도와 식습관과의 상관관계가 0.31이었고 이는 비록, 그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그들의 식습관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응답자의 61%가 이민 후 그들의 식습관이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일정기간의 거주기간 후 식습관의 반전이 있었는지는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선행된 연구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다.

Lewis는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후 전통적인 필리핀 식습관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약간의 변형이 있었음을 알아내었다(Lewis & Glaspy 1975). 그 변화는 영양적으로 더 나은 쪽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민 후 식습관의 변화에 기인하여 식사와 질병과의 관계에 대하여 흥미가 증가하고 있다. Marmot & Syme(1976)은 서양문화에 매우 적응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관상심장병에 있어서 세배에서 다섯배 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관상심장질환의 발병에 있어서 차이점을 완전히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일본계 미국인들의 역학 연구에서 전통적인 일본 생활습관을 지속시킨 사람들 사이에서 당뇨와 관상심장질환의 유병율이 감소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전통적인 일본인들은 더 낮은 혈청 콜레스테롤과 요산수준을 나타내었고 위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Reed 등 1982). 일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또 다른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의 발생이 적은 사람들은 그들의 식사에서 더 많은 탄수화물과 더 적은 양의 지방과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며 일본식의 식습관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Huang 등 1996).

Lands(1990)등은 새로운 장소로의 이민은 식사와 질병의 양상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인들의 식습관(더 좋은 면으로는 혹은 더 나쁜 면으로는)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Hawaii와 San Francisco에 이주한 일본인과 비슷하게 다량 영양소의 섭취변화와 그 결과 건강에 미치는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5). 비록, 재미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만성적 질환의 증가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 연구결과에서 재미한인들은 문화적응과 더불어 식습관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재미한인들에게 이민 후 질병양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

으로 식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제 언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문화적응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일상적인 식습관의 형태 및 식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응도의 여러가지 요인 분석을 하여 문화적응도와 식습관과의 동적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재미한인 집단의 식생활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다양한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이민 후 본국의 식습관을 지속시키도록 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문화속에서 다양한 식품을 경험하게 하면서도 영양학적으로 건전한 패턴을 선택하도록 권장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제한점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가 뉴욕근교에 거주하는 한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을 보다 더 일반적으로 대표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문화적응도 등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다 더 다양한 한인들의 집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식품의 이용성이 다른 여러 지역의 한인들도 포함시켜 보다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Chung SS(1995) : Dietary change : Food habits of Koreans in New Hav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New Haven, CT

Cohen J(1988) :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ide, NJ

Flores G(2000) : Culture and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 Achieving cultural competency in health care. *J Pediatr* 136(1) : 14-23

Freedman MR, Grovetti LE(1984) : Diet patterns of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Greek-American women. *Ecol Food Nutr* 14 : 185-204

Freedman RL(1977) : Nutritional anthropology : An overview. In T. K. Fitzgerald(Ed.). Nutrition and anthropology in action. Van Gorcum Assen, Amsterdam

Gim RH, Atkinson DR, Whiteley S(1990) : Asian-American acculturation, severity of concerns, and willingness to see a counselor. *J Counseling Psychol* 37(3) : 281-285

Gove FB, Flexner SB, Hauck LC.(Eds.)(1993) :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2nd ed.). Random House, New York, NY

Grivetti LE, Paquette MB(1978) : Nontraditional ethnic food choices among first Generation Chinese in California. *J Nutr Educ* 10(3) : 109-112

Huang B, Rodriguez BL, Burchfiel CM, Chyou P, Curb JD, Yano K (1996) : Acculturation and prevalence of diabetes among Japanese-American men in Hawaii. *Am J Epidemiol* 144(7) : 674-681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1997) : Korean Americans censu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Lands WE, Hamazaki T, Yamazaki K, Okuyama H, Sakai K, Goto Y, Hubbard VS(1990) : Changing dietary patterns. *Am J Clin Nutr* 51 : 991-993

Lee HK(1998) : Food habits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Lewis JS, Glaspy MF(1975) : Food habits and nutrient intakes of Filipino women in Los Angeles. *J Am Diet Assoc* 67 : 122-125

Marmot MG, Syme SL(1976) : Acculturation and coronary heart disease in Japanese-American. *Am J Epidemiol* 104(3) : 225-247

McKenzie JC(1964) : Food trends : The dynamics of accomplished change. In J. Yudkin and J. C. McKenzie(Eds.). Changing food habits. Macgibbon & Kee, London

Newman JM(1980) : Chinese immigrant food habits : A study of the nature and direction of change,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NY

Reed D, McGee D, Cohen J(1982) : Acculturation and coronary heart disease among Japanese men in Hawaii. *Am J Epidemiol* 115 (6) : 894-905

SPSS Inc.(2000) : SPSS professional statistics 10.0. SPSS Inc., Chicago, IL

Suinn RM, Khoo G, Ahuna C(1995) :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 Cross-cultural information. *J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3 : 139-148

Tabachnick BG, Fidell LS(Eds.)(1996) :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 York :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U.S. Department of Commerce(1991) : 1990 census of the population. U.S. summar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95) : The Surgeon General's report on nutrition and health.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Westermeyer J, Cheng H(1996) : English fluency and social adjustment among Hmong refugees in Minnesota. *J Nerv Ment Dis* 184(2) : 130-131

Yi JK(1998) : Acculturation and Pap smear screening practices among college-aged Vietnamese women in the United States. *Cancer Nurs* 21(5) : 335-341.